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1

▶ 12회 예고
빈두사라는 예전처럼 왕자들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왕자를 자신이 정복한 소국으로 보내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러 종교 수행자들 가운데 왕자의 스승을 물색해 보지만 어렵다. 마침내 사문 목갈리뿟다띳사를 추천받는다.



빈두사라, 피의 보복을 멈추다

탁실라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빈두사라의 군사는 자신들이 파괴한 성 안의 건물들을 복구하느라 밤낮 가릴 것 없이 땀을 흘렸다. 그런 모습이 소문나자 성 밖으로 피신했던 성민들이 무리지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반두사라가 탁실라에 들어온 지 두 달만이었다.

다르마는 브라흐민 제관 칼라따까를 불렀다. 그런데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했다. 다르마가 칼라따까를 부른 이유는 반란자들을 응징하는 빈두사라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칼라따까는 막 기도를 마친 듯 흰옷 자락을 너풀거리며 왕비처소로 왔다.

"요즘도 가끔 대왕님께서 칼에 피를 묻히고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왕자를 출산하게 될 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비님, 감축드립니다."

칼라따까는 다르마에게 합장하면서 말했다.

"왕자님 탄생을 축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이지 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시면 감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비님은 참으로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용서는 칼보다 더 위대한 법입니다."

다르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용서까지 말한 칼라따까가 고마웠다. 그가 나간 뒤 락슈미띳사를 불러 말했다.

"제관을 만나 얘기해보니 소문하고는 다르구나. 제관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어."

"조심하셔야 해요. 그분은 이쪽에서 하는 말하고 저쪽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제관의 말을 믿어 보자구나. 어쨌든 대왕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신하 중에 한 분이니까."

그날 밤, 빈두사라가 모처럼 왕비처소로 왔다. 빈두사라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희소식이오. 반란수괴가 은신해 있는 동굴을 알아냈소."

"탁실라에는 봄이 왔는데 또, 피바람이 불겠군요."

"왕비, 넘겨짚지 마시오. 나는 칼라따까의 충언을 따르기로 했소. 그를 생포하면 하옥시켰다가 진실로 반성하면 살려줄 생각이오."

"칼라따까 제관의 말이 옳아요. 대왕께서는 탁실라 성민들의 마음까지 얻는 승리자가 될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내일 반란수괴를 체포하러 탁실라를 떠날 것이오."

"대왕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겠어요."

다르마는 빈두사라에게서 평온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기뻤다. 빈두사라는 반란수괴를 생포해야만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반란수괴가 은신해 있는 동굴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빈두사라는 흡족해했다.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발한 사람은 반란수괴의 참모였다. 어젯밤에 반란수괴의 참모가 빈두사라를 찾아와 밀고했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반란수괴의 참모에게 즉시 포상을 명했다.

다음날. 빈두사라는 선봉대를 앞세우고 반란수괴가 은신한 동굴로 향했다. 동굴은 탁실라 서북쪽 산악의 깎아지른 절벽에 있었다. 절벽은 대규모의 군사가 접근할 수 없는 지형이었다. 그러나 선봉대 군사들은 절벽으로 난 외길을 원숭이처럼 접근해 갔다. 반란수괴는 빈두사라 군사의 공격을 눈치 채지 못했다.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선봉대는 쉽게 동굴 입구에서 침투조를 짰다. 빈두사라는 후방에서 지켜볼 뿐, 직접 생포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아슬아슬한 절벽의 동굴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컸던 것이다.

잠시 후 동굴 입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생포작전이 성공했고 작전을 끝낸다는 신호였다. 반란수괴라 하여 긴장했지만 작전시간은 의외로 짧았다. 빈두사라의 침투조 군사를 보는 순간 두 손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시중을 드는 두 명의 여인과 함께 있었다.

반란수괴는 눈을 가린 채 빈두사라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다. 두 여인은 선봉장이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다. 빈두사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라. 너는 물론 저 여인들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니라."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소. 다만 저 여인들은 죄가 없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탁실라는 마우리아왕국의 영토인데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빠딸리뿌뜨라에서 파견 나온 신하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소. 세금이 불어나 도둑질해서 내야 할 형편이 되었소. 성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소. 내가 반란에 나섰다기보다는 성민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소."

"반란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죽였는가? 반란을 정당화시키지 말라."

"우리들은 알렉산더가 남긴 군사를 몰아냈소. 그러니 탁실라를 지켜낸 공이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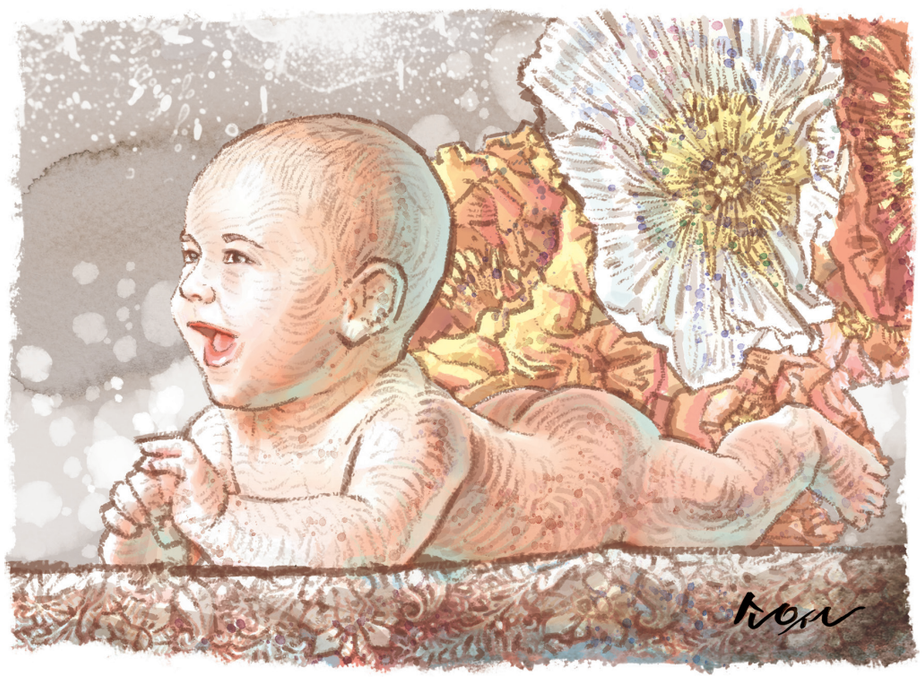
"수괴답게 함부로 지껄이는구나. 너희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탁실라 사람이야말로 침략자 알렉산더를 인정하지 않은 진정한 인도사람이 아니겠느냐."

반란수괴는 빈두사라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선봉장이 동굴에서 반란수괴로부터 압수한 칼을 빈두사라 앞에 바쳤다. 빈두사라는 칼에 새겨진 명문을 보고는 반란수괴의 것임을 확인했다. 칼에는 알렉산더가 부하들에게 한 말이 새겨져 있었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 그는 이 세상도 정복하리라.'

알렉산더가 한때 정복했던 탁실라를 물러가면서 누군가에게 하사한 칼이 분명했다. 칼을 챙긴 빈두사라가 매우 흡족해 하면서 선봉장에게 반란수괴를 압송하라고 지시했다.

"저 자를 탁실라 감옥에 가두거라."



반란수괴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빈두사라는 또다시 선봉장에게 명했다.

"이제야 탁실라에 평화가 왔다. 군량미를 풀어 배고픈 성민들에게 나누어주라."

빈두사라는 반란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군사들 앞에서 정식으로 선포했다. 반란수괴를 생포한 데다 수괴의 칼까지 획득했으므로 더 이상의 긴장은 필요 없었다. 성문 밖까지 탁실라 성민들이 나와 빈두사라 군사를 환영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탁실라 왕으로 섬겼던 반란수괴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

"저놈이 우리 인도사람의 영혼을 마케도니아 왕에게 팔아먹었소!"

그러나 선봉대 군사들이 반란수괴를 감쌌다. 감옥에 가두어 놓은 뒤 신문할 것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실라 성안은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다. 군수부대 장수가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져온 술과 군량미를 나누어주도록 군사들에게 지시했다.

축제분위기는 밤낮으로 여러 날 이어졌다. 찬드라굽따를 도왔다가 피신했던 늙은이들이 하나둘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모두가 늙은 목동들이었다. 찬드라굽따는 소와 양을 치는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것이다. 목동 가운데 한 명이 빈두사라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다.

"까우띨리야께서는 우리 목동들 곁에서 병사했사옵니다. 목동들은 시신을 태우고 난 재를 인더스강에 뿌렸사옵니다."

"탁실라에는 의원들이 많을 텐데 어째서 그대들 곁에 있었단 말인가?"

"까우띨리야께서는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흔적을 몹시 경멸했사옵니다."

"오, 까우띨리야 대신처럼 탁실라를 사랑했던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오."

"그분이 돌아가신 날 우리 목동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에 잠겼사옵니다."

"짜라나비슈누 소식은 듣지 못했는가?"

"짜라나비슈누 장군은 탁실라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사옵니다. 반란수괴 왕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굶겨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목동들이 돌아간 뒤 빈두사라는 행궁으로 들어가 소리 내어 통곡했다. 브라흐민 까우띨리야는 아버지 찬드라굽따의 동지이자 스승이었지만, 빈두사라에게는 왕자수업을 시킨 교사였다. 어린 시절에는 산스끄리뜨어를 외우고 읽는 방법과 수학을, 10세가 넘어서는 천문, 점성, 의술, 통치술을 가르쳤던 것이다. 반면에 젊었던 짜라나비슈누는 검술과 궁술, 등 주로 무예를 가르쳤는데, 두 사람은 왕자 빈두사라에게 있어서 쌍두마차나 다름없었다. 빈두사라는 짜라나비슈누의 행방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칼라따까 제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빈두사라의 지시를 받은 칼라따까는 날마다 인더스강으로 나가 기도를 했다. 한 달 보름쯤 되었을 때에야 칼라따까는 하늘의 대답을 들었다. 그는 즉시 빈두사라에게 달려갔다.

"짜라나비슈누 대신은 탁실라를 떠난 적이 없다는 하늘의 대답을 들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보았을 것이 아니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상한 일이오."

"대왕이시여, 불행한 일이옵니다만 어쩌면 반란수괴가 처형한 뒤 우물감옥에 빠뜨려버렸는지도 모르겠사옵니다."

빈두사라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둥댔다. 우물감옥은 성문 안에 있었는데 수백 걸음 깊이로 땅을 파서 죄인을 던져 넣으면 영원히 살아나올 수 없었다. 빈두사라는 선봉장을 불러 명했다.

"반란수괴를 불러 문초하시오. 만약에 그가 짜라나비슈누를 처형했다면 이보다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소? 선봉장은 수괴의 목숨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자백을 받아내시오."

빈두사라는 선봉장에게 반란수괴의 목숨을 맡긴다고 명했다. 다르마가 이제는 용서하라고 애원했지만 빈두사라는 자신의 스승을 죽인 반란수괴를 극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란수괴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우물감옥도 아까우니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산악에 버리시오.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시오."

선봉장은 즉시 반란수괴를 불러 고문을 시작했다. 반란수괴는 고문을 한 지 며칠 만에 이실직고했다. 칼라따까의 짐작대로 짜라나비슈누가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자, 목을 자른 채 우물감옥에 던져버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왕비처소에서 보고를 받은 빈두사라는 또 통곡했다. 다르마는 빈두사라가 왜 통곡하는지 모르고 위로했다.

"대왕이시여, 왕자가 곧 태어날 것 같사옵니다. 꽃이 피어나는 봄날, 가장 좋은 날에 왕자가 태어날 것 같사옵니다."

"아, 이 무슨 조화인가?"

빈두사라가 알 듯 모를 듯한 혼잣말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락슈미띳사는 궁녀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성수를 떠온 궁녀, 마른 천을 준비해온 궁녀, 탁실라 외곽에서 데려온 늙은 산파 등이 왕비처소 밖에서 대기했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 제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빈두사라가 왕비처소 뒤쪽에서 슬퍼하고 있자 칼라따까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행복과 불행은 같이 붙어 다닌다고 했사옵니다. 아침에는 짜라나비슈누의 비보를 들었지만 낮에는 왕자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낭보를 듣고 있사옵니다. 어쩌면 왕자님은 덕행과 무재(武才)를 겸비한 짜라나비슈누의 환생인지도 모르겠사옵니다."

그제야 빈두사라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태어나는 왕자를 통해서 자신이 존경했던 짜라나비슈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위로를 받은 듯했다. 다르마는 약간의 산통 끝에 큰 고통 없이 능숙한 산파의 손놀림으로 왕자를 출산했다. 갓난아기 왕자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타나 빈두사라와 다르마에게 눈앞의 근심을 잊게 해주었다. 이레 동안이나 보기만 해도 웃게 하는 행복을 선사했다. 빈두사라는 다르마와 칼라따까 제관과 상의하여 갓난아기 왕자 이름을 아쇼까로 지었다. 아쇼까란 '근심이 없다(無憂)'는 뜻이었다. 〈계속〉

인도 아유르베다 근간으로 하는 치유대학
IIME자연의학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 수업과목 : 인도요가, 약초치료학, 음악치유, 영어회화, 체질학치유, 만다라치유, 미래예측학, 경혈학, 양자파동학, 효소응용학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8일 ~ 수시모집
◈ 모집과정 : 전문가, 학사, 석사, 박사, 자연의사
◈ 수업방식 : IIME한국캠퍼스 온·오프라인수업(토요일), 인도우편수업
◈ 특 전 : 학위취득 시 인도정부 학위 인정서 발부
도시농업관리사 수강시 수업료 감면
오픈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21년 3월 27일 오후 3시
- 초빙교수 : 김태곤 가수(망부석)
- 주 제 : 음악치유와 함께
※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한국IIME대학교 학장 이호선 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71번지
접수 : TEL 031)274-7388
행정실장 010-4664-9788
혜웅스님 010-4740-3001
홈페이지 http://iimeorg.com, http://holistichealthorg.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